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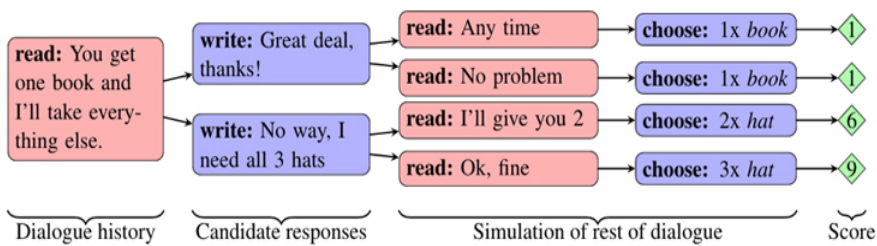
최신 ICT 이슈

III .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소, 협상 능력을 가진 채팅봇 개발

◎ 페이스북은 자사의 인공지능 연구팀(Facebook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: FAIR)이 교섭력을 갖춘 대화형 AI 봇을 개발했다고 발표

- 페이스북은 ‘대화 에이전트(Dialogue Agent)’라 부르는 이 로봇 기술의 소스 코드를 깃허브에 무료로 공개했으며, 기술 내용을 소개하는 논문도 발표하였음
- FAIR 에 따르면,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 것인지 결정하거나, 어린 애들이 먹기 싫어하는 야채를 먹이거나, 좀 더 싼 가격으로 쇼핑을 하는 등의 인간의 일상생활은 협상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며, 이 협상에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과 판단 기술이 필요함
- 그러나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세운 기존의 채팅 봇이 실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레스토랑 예약 등 간단한 작업에 필요한 짧은 대화능력 정도임
- FAIR 가 개발한 대화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인간끼리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팅봇 또는 인간과 협상하며 공통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임

◎ FAIR 는 2 개의 봇에 여러 항목의 그룹(예: 책 2 권, 모자 1 개, 공 3 개)을 보여 주고,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는 등의 협상을 학습시켰다고 함



<자료> Facebook

[그림 1] 2 개의 채팅봇이 물건을 나누는 협상 과정을 학습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8296)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(soma0722@naver.com ☎ 02-576-260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- ▶ 교육에 앞서 우선 실제 인간 사이의 협상 사례를 모은 다음, 그것을 기초로 봇에 반복 훈련을 시켰으며, 협상시의 인간다운 말투에 대해서도 학습과 조정을 거듭했다고 함
- ▶ 성능 테스트를 위해 대화 에이전트가 온라인으로 인간과 협상(대화 언어는 영어)을 하도록 시킨 결과, 대부분의 시험 대상자는 상대가 로봇임을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함

(f code, 6. 15. & Wired, 6. 15.)